

‘증시 활황’ 특수... 캐피탈사, 비이자수익 중심 실적 반등

신한 1분기 순이익 618억
전분기비 280%, 전년비 97% ↑
하나 순이익 645억 늘어 적자 탈출
JB우리 유가증권 이익 396% ↑
여신·연체율 등 리스크 ‘주의보’



Chat GPT가 생성한 증시 활황과 캐피탈사 순이익 증가 관련 이미지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인 캐피탈사가 증시 활황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비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 다만, 부실 자산 확대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한 모습이다.

28일 각 금융지주 경영 공시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의 1분기 순이익은 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했고, 하나캐피탈은 535억원으로 70.2% 늘었다. JB우리캐피탈은 727억원으로 24.3% 증가했다.

신한캐피탈의 전 분기 대비 순이익 성장률은 279.1%다. 1분기 만에 순이익이 163억원에서 618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하나캐피탈도 같은 기간 순이익 규모

가 64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하나캐피탈은 1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캐피탈사들이 투자 이익을 본 덕분이다.

신한캐피탈의 비이자수익은 전년 동기(1655억원) 대비 84.4% 증가한 3052

억원을 기록했다. 그중에서 유가증권 부문 수익이 2188억원으로 같은 기간 44.2% 증가해 전체 비이자수익의 성장을 주도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신한캐피탈의 경우 증시 호황으로 배당금 등 유가

증권 관련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JB우리캐피탈도 큰 폭의 유가증권 이익을 봤다. 지난해 1분기 72억원에 불과했던 유가증권 이익이 올해 1분기 357억원으로 396%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하나캐피탈의 매매 평가액은 마이너스(-)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55억원) 대비 손실 폭을 102억원 가량 줄이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매매 평가액은 주식·채권 등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가 상승해 장부상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통상 증시가 호황일수록 매매평가이익 규모도 확대된다. 유가증권 투자 이익은 매매 평가액과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남긴 처분이익 등을 모두 합친 이익을 뜻한다.

비이자수익의 확대 등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며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키움캐피탈의 수익 창출력과 재무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이자마진 회복과 투자금융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키움캐피탈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라 투자금융 이익 증가가 더해지면서 총자산이익률(ROA)이 전년 대비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업계의 건전성 리스크는 여전한 모습이다. 신한캐피탈 1분기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은 3.31%로 전 분기 대비 1.01%포인트(p) 상승했다. JB우리캐피탈은 같은 기간 NPL 비율이 2.60%로 전 분기 대비로는 0.52%p,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9%p 상승했다.

하나캐피탈의 경우 NPL 비율이 지난해 1.62%에서 1.56%로 떨어졌으나 같은 기간 연체율이 1.62%에서 2.37%로 0.75%p 상승했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metro

기업심리 소폭 올랐지만 경제심리 ‘싸늘’

한은, 4월 기업심리지수 0.8p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부담 커져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4월 기업심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가계의 수입·소비 전망과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이 악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심리는 오히려 꺾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4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3.9로 전월 대비 0.8p 올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다. 장기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기업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4월 지수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전월보다

2.0p 상승했다. 제품재고와 업황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제품재고는 경기 판단과 반대로 움직이는 역계열 지표로, 재고 부담이 줄어든 점이 제조업 체감경기 개선에 기여했다.

비제조업 CBSI는 92.1로 전월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은 개선됐지만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됐다. 다음 달 전망도 제조업은 98.0으로 2.1p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전월과 같았다.

세부 BSI를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전월보다 3p 상승했다. 매출 BSI는 87로 4p 올랐고 신규수주 BSI도 85로 1p 상승했다. 제품재고수준 BSI는 97로 4p 하락해 재고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부담은 커졌다. 제조업 채산성 BSI는 68로 전월보다 5p 하락했고, 자금사정 BSI도 76으로 3p 낮아졌다. 원자재 구입가격 BSI는 149로 전월보다 12p 뛰었다. 제품판매가격 BSI도 110으로 7p 상승했지만 원가 상승 폭이

더 컸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경영여도 원자재 가격상승이었다.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을 꼽은 비중이 34.2%로 전월보다 13.2%p 뛰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 19.3%, 내수부진 13.8% 순이었다.

비제조업도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이 19.4%로 가장 높았다. 전월보다 5.8%p 높아졌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18.7%, 내수부진은 16.7%로 뒤를 이었다.

기업심리는 반등했지만 경제심리는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7로 전월보다 2.3p 떨어졌다. 순환변동치도 94.4로 전월 대비 0.3p 하락했다.

ESI 하락에는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 악화와 가계 심리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 기여도는 마이너스(-) 0.6p였다.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도 각각 -1.0p, -0.8p로 나타났다.

/김주형 기자 gh471@

주담대 금리 8%대... 인뱅, 경쟁력 ‘흔들’

당국, 부채 관리에 인하여력 축소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총량을 엄격히 제한하자,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낮은 금리를 앞세운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연 3.72~8.50%로 집계됐다. 같은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3.61~6.01%인 것과 비교하면 하단은 0.11%포인트(p), 상단은 2.49%p 높은 수준이다.

케이뱅크, 연 3.72~8.50% 집계 시중은행 보다 상단 2.49%p 높아 카카오펙, 연 4.29~6.92% 수준 일주일 새 금리상단 0.59%p 상승 인니·태국·몽골 등 해외진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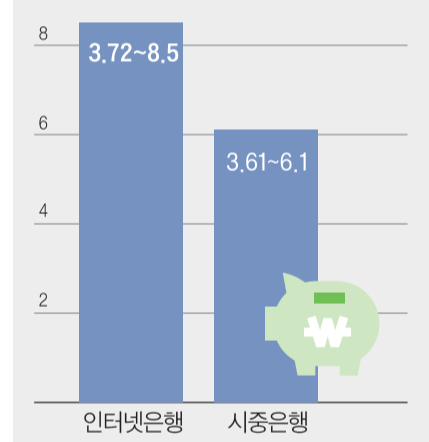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준 연 4.29~6.92%로 나타났다.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 하단은 0.1%p 상단은 0.59%p 올랐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높아진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주담대 비중이 대부분인 인터넷은행의 운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기업대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여신 구조가 가계에 집중된 인터넷은행은 규제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금리 산정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까지 안고 있어 리스크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뱅·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비교 (단위:%)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여신 구조상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총량 규제가 강화될수록 금리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담대 확대 여지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추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대출심사모형(CSS)을 한층 정교화하고, 향후 중소기업(SME)전용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해 건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는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몽골 진출을 확정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슈퍼뱅크에 지분을 투자해 현지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태국은 SCB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은행을 운영한다. 몽골은 MC S그룹과 협력해 CSS기술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수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은행들이 기업 금융이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수익원과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DL이앤씨, 목동6단지 재건축 도전장

단지명 ‘아크로 목동 리젠시’ 제안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목동6단지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했다. 조합은 DL이앤씨 제안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173가구 규모(조합 원안설계 기준)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2129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가 목동6단지에 제안한 단지명은 ‘아크로 목동 리젠시(ACROM OKDONG REGENCY)’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교육특구이자 명문 주거지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목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사와 하이엔드 조경 설계그룹 및 초고층 건축구조 설계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특화 설계를 목동6단지에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는



아크로 목동 리젠시 투시도. /DL이앤씨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목동신시가지 내 최고의 입지로 대체 불가능한 상징성과 희소 가치를 갖고 있다”며 “DL이앤씨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